

비전 2005 달성 축하 및 송년의 밤

협회는 한해를 마감하고 비전 2005의 성공적인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2월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에 위치한 거문고홀에서 '비전2005 달성 축하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외부초청인사 및 협회 임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최병수 회장의 송년사와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과 노동부 김성중 본부장의 축사에 이어 건배 제의, 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된 1부 행사와 '아시아나 부부 듀엣' 공연 및 만찬으로 2부 행사가 있었다.

최병수 회장은 송년사에서 "이 자리가 비전 2005를 축하하는 동시에 이만큼 달성할 수 있게 된 것도 몰신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기에 그 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는 게 도리라 여겨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인사와 더불어 "땀가를 이루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한 비전 2005가 직원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그에 합당한 많은 성과를 올렸다"는 비전 달성 소감을 밝혔다.

최병수 회장의 이 같은 소감은 앞서 발표한 박영욱 국장의 비전 2005 성과 설명과 '21세기 산업보건을 선도하는 협회'로서의 도전을 천명한 비전 2010의 목표를 확인하고 협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실어주었다. 또한, 비전 2005 달성에 공로가 있는 직원들과 지난 5년간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센터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2005년에 의미를 부여, 지난 5년을 한꺼번에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비전을 제시한 이번 '비전 2005 달성 축하 및 송년의 밤' 행사는 대내외적으로 협회의 위상을 확인하고 협회 미래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고 마운 분들을 모시고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쁩니다."로 시작된 최병수 회장의 송년사



▲ 박영욱 국장이 비전 2005의 성과와 '21세기 산업보건을 선도하는 협회'를 향한 비전 2010을 설명하고 있다.

▼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많은 분들이 도와서 이룬 협회의 성과를 보니 이 자리가 협회의 저력을 확인하는 기회였다."는 김춘진 열린우리당 보건복지분과 의원의 축사

▼ "2010년에도 기쁨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꼭 초대해 달라"는 김성중 노동부 정책홍보관리 본부장의 축사





- ♣ 조규상 명예회장이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치며 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
- ♣ 비전 2005 달성에 공로가 있는 직원들을 포상하고 있다. 신상구 부장, 이종국 과장, 김진영 과장



- ♣ 지난 5년간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충북센타, 김철두 국장이 대표로 공로패를 받고 있다.

- ♣ 2부 순서로 비전 2005 달성 축하의 의미에서 최병수 회장이 아시아나 부부 듀엣과 열창을 하고 있다.

- ♣ 충북센타 국장과 직원들이 무대에 올라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

